****

**선교 활동 보고**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사무엘 폴랑코는 장벽이 가지는 위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메나울 스쿨](https://www.menaulschool.org/)(뉴 멕시코주 알버커커에 위치한 대학 예비 학교. 6-12학년이 다니는 미국장로교 연계 학교임) 2022년 졸업생인 사무엘은 장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실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유적인 의미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사무엘과 다른 이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메나울에서의 경험이 삶 속의 수많은 장벽을 부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메나울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장로교의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http://specialofferings.pcusa.org/christmasjoy.html) 덕분이었습니다. 이 특별헌금이 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장로교회의 소중한 전통인 이 연간 헌금은  [연금국](https://www.pensions.org/)의  [지원 프로그램](https://www.pensions.org/your-path-to-wholeness/assistance-program)과  [소수인종 공동체 양성에 중점을 두는 교단 연계 학교들과 대학들](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racial-equity-womens-intercultural-ministries/leadership-development-leaders-color/schools-colleges-equipping-communities-of-color/)에 고루 분배됩니다. 현재 메나울 학생들은 21개국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나울에서 원하는 것들을 탐구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될 수 있었죠. 이것이 메나울 스쿨이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사무엘을 포함한 2022년도 졸업생 35명은 [프론테라 데 끄리스또](http://fronteradecristo.org/)의 학생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프론테라 데 끄리스또는 국경을 가로질러 관계와 이해를 형성하는 사명을 가진 국경 사역 단체입니다. 학생들은 메나울 학교의 전통인 "선교 주간"을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5일을 보냈습니다.

메나울 학교 고등 과정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존 시틀러는 사무엘과 그의 친구인 마이클 헤덴버그와 아비 니아제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선교 주간동안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 깊이 감명을 받았고 특히 국경 장벽에서 '이민자의 길'을 걸을 때 그러했습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지구상의 이 '상처'를 목격하고 나서 학생들이 깨달은 것은. 가장 위험한 장벽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존이 말했다. 메나울 학교는 모두가 누려야 하는 인간다움을 막는 장벽을 부수도록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나누는 장벽을 부수고 서로를 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은 "우리는 신앙이 세상 속에서 살아 있도록 가르칩니다. 많은 젋은이들이 교회를 서로를 나누고 고립시키는 장벽으로 생각하기에, 메나울 학교는 하나님 피조물의 풍성함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메나울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각 나라의 미래 리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내어주시는 여러분의 정성은 장벽을 부수고 교단의 미래 리더를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저희 서로를 나누고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벽들을 부수어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고 주셨듯이, 저희도 서로에게 자신을 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아멘***.*